이 자료는 2023년 4월 21일(금)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장 동정자료

동행·매력 특별시 서울

■ 매수 : 2매 ■ 사진 : 일정종료직후 제공 웹하드(press.webhard.co.kr) ID/PW:press1

담당 : 서울특별시 대변인 언론담당관

언론담당관 박 경 환	2133-6205	신문팀장 천 세 은	2133-6207	담당자 조 항 윤	2133-6253

오세훈 시장, '매력도시 서울' 알리는 어린이기자단 활동 지원한다

- 21일(금), 서울시-에듀조선 업무협약 체결 -

□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(금) 14시 10분, 서울시청 본관 영상회의실(6층)에서 '에듀조선'과 「어린이신문 및 어린이기자단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」을 체결한다.

□ 이번 협약은 어린이들에게 '매력도시 서울'의 다채로운 모습을 알릴 수 있도록 서울시(내친구서울)와 에듀조선(어린이 조선일보)이 어린이 기자단의 운영 및 공동취재 등을 협력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.

○ <내친구서울>은 서울시에서 2001년 3월부터 발간한 어린이신문으로 서울의 역사·문화·정보,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안내, 또래 이야기, 학습 정보 등을 담아 서울시 초등학교 3~6학년 어린이 및 교사에게 배부하고 있다.

○ <어린이 조선일보>는 국내 최초의 어린이 신문으로 1937년 1월 창간했다.

□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▲공동취재단(내친구서울-어린이조선일보 어린이기자단) 운영 ▲상호간 신문 지면 및 온라인 홈페이지 활용 기사 게재 ▲시 개관시설 현장체험 및 기자 캠프 등 자원활용 협력 등을 함께 지원해나갈 계획이다.

□ 오 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들이 또래 어린이들의 눈으로 바라본 서울의 다양한 매력과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 보다 가치있는 정보를 보고 즐기고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는 인사말을 전한다.

□ 한편, 서울시 어린이기자단은 매년 3월 서울시내 초등학교 3~6학년을 대상으로 모집한다. 탐방취재, 유명인사 인터뷰 참여와 다양한 기사 쓰기 활동을 통해 <내친구서울> 누리집(https://kids.seoul.go.kr/)에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. 지난 2001년 창간 이래 지금까지 1만 8759명의 어린이기자가 참여했으며, 올해는 791명의 어린이들이 서울시 어린이기자단으로 활동 중이다.

「서울시-에듀조선 업무협약식」 주요일정

시 간		세 부 내 용	비 고
14:10 ~ 14:12	(02')	○ 개회 및 내빈소개	뉴미디어담당관
14:12 ~ 14:15	(03')	○ 인사말	시장, 에듀조선대표
14:15 ~ 14:20	(05')	○ 상호 매체 및 협력내용 소개	뉴미디어담당관
14:20 ~ 14:25	(05')	○ 협약서 서명 및 교환	시장, 에듀조선대표
14:25 ~ 14:30	(05')	○ 기념촬영 및 폐회	참석자 전원

※ 관련 부서 : 뉴미디어담당관 미디어채널팀장 이은경 ☎2133-6506